

[오피니언]

테마칼럼

경제로 봄날을 기다리다

미술로 미술을 살피다

빛고을에 살며

정부·문화 세상



안톤 솔츠

“

안타깝게도 나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국제화’는 여러 상황에서 그저 말뿐으로 남으며 한국은 아직 국제화를 실현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십시오

‘국제화’ 단지 좋은 생각일 뿐인가?

며칠 전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고자 했다. 최근에 이사를 하고 난 뒤로 다니던 은행이 집에서 멀어 마침 집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도 만들 참이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일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신용카드 발급이었다. 새로운 카드 발급을 받기 위한 서류에 ‘외국인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었다. 사실 내게는 좀 놀라운 일 이었다. ‘신용’이라는 말과는 달리 내가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얼마나 돈을 벌었지, 물건값과 세금은 제때 치를 수 있는지는 상관이 없었다. 하물며 관련 은행에 넉넉한 구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어도 카드신청인이 외국인인 이상 그 어떤 조건에서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의 이런 방침은 좀처럼 설득력이 없다. 특히나 국제적인 은행처럼 광고를 하고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은행에서라면 말이다. 나는 그래도 고집스럽게 한국의 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심사에서 승인이 안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다른 은행들이 서로 좀 더 다르다리를 해도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에 관해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에서 돈이나 권력과 관계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외국인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끔 했다.

꽤나 오래전 자문역할로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국제화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토론 중에 한 전남대 교수님이 말씀하길 “어느 날 솔조교수도 광주시장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광주가 국제화였다는 것이라고” 그 말이 끝나자 나를 포함해서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엉터리 같은 생각이지 않은가? 그러나 그 후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나자 그 말은 전혀 농담이 아니며 사실 그 교수가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의 오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한국 도시의 시장이 된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일 만큼 ‘국제화’란 단어는 한국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이상적인 단어로 생각되고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는 오스트리아 출생의 영화배우, 앤드루 슈왈츠네거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된 경우도 볼 수 있고 일본의 뿐만 아니라 폐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11개국 출신의 전통 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한·아시안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싱가포르를 대표했던 곡을 쓰고 지휘한 사람은 싱가포르인이나 중국인, 다른 아시아국가 사람도 아닌 영국 사람 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 영국인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최고 작곡가 겸 지휘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이런 일들이 한국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하얀 얼굴을 한 이방

인이 전라남도 도지사가 될 수도 있겠는가?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나 중요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고 보는가?

솔직히 나조차도 이런 일이 한국에 곧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외국인의 이미지가 영어강사나 경우에 따라 재미있거나 특이한 구석이 있어 TV에 소개되는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나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국제화’는 여러 상황에서 그자 말뿐으로 남으며 한국은 아직 국제화를 실현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외국인의 수와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의 주제라면 언젠가 한국인의 이름과는 다른 이가 중요한 위치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적어도 국제적인 비즈니스로 큰 돈을 버는 한국의 큰 은행들과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잊지 않길 바라며 외국인을 점차 늘어가는 잠재적인 고객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고 보길 바란다. 그들에게 서비스를 거절하는 이유가 단지 그들이 외국인이어서라면 그것은 인종차별주의에 가까울 뿐더러 한국 사회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조선대 독어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되풀이되는 물류대란 근본 해결책 찾아야

화물연대가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대한통운과 막판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도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2002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도 물류대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물류대란마저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는 침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파업 첫 날인 11일에는 광양항 등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물류 차질을 빚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파업 전에 항민을 봉쇄하거나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운송거부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파업은 명분과 실리가 약하다는

지자체 공무원 특채 해도 너무한다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현행 공무원법상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한 특별채용을 남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일부 시·군의 경우 특채비율이 공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의 원칙이고, 다만 당해 직위에 그 임용 예정자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특별로 임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부 시·군이 이 조항을 편법으로 해석해 자기 ‘입맛’에 맞는 사

람들을 채용하고 있다.

K시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104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무려 60명을 특별채용으로 임용해 공체인원 44명을 크게 앞질렀다. 또 G군과 B군도 공무원 특채비율이 30%대에 달했으며 H군은 최근 3년 동안 44명의 공무원을 특채로

뽑았다. 이들 특채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의 자녀, 사회단체 간부와 유력인사 등의 자녀였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의 지인들을 대거 뽑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자체들의 특채남발이 줄서기 관행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일부 단체장이 차기선거를 겨냥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자기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역사회에선 단체장 배경이 없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한 능력보다는 차지단체장의 지인들을 챙기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이 발탁할 기회가 제한된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다는 점

에서 기관 행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일부 단체장이 차기선거를 겨냥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자기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역사회에선 단체장 배경이 없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한 능력보다는 차지단체장의 지인들을 챙기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이 발탁할 기회가 제한된다.

無等鼓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 뭘까? 혹자는 ‘블루마운틴이 가장 비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유일하게 미국 하와이에서 재배되는 코나가 더 비싸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생산되는 ‘커피 루왁(Luwak)’이다.

한국인들은 1년에 평균 300잔의 커피를 마신다. 커피는 빠듯해진 지갑 사정에도 즐길 수 없는 필수재가 됐다. ‘커피 한 잔 할까요?’라는 상투적인 인사처럼 한국에서 커피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 수단이다.

‘양촌리 커피’로 대변되는 다방커피 전성 시대에는 값의 부담이 그나마 덜했다. 최근 들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의 경우, 커피값의 압박이 벼롭

다. 보통 한잔의 커피값이 한杯 짐짓값에 육박한다. 2천 원짜리 김밥 한 줄을 먹고 5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웃지못할 일도 비일비재하다.

커피 루왁은 그렇다손 저더라도 대량 생산되는 원두를 쓰는 테이크아웃점의 커피값이 왜 그렇게 비싼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h8@

기고



전병덕

우리는 마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언제부터라고 정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10대 향암식품 가운데 하나인 마늘은 재배역사가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를 보더라도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에 마늘이 등장한다.

곰과 호랑이가 한 동굴에서 살면서 사람 이 되기 위해 100일 동안 마늘을 먹었지만 끝내 호랑이는 이를 견디지 못해 사

기고



정병해

아침 6시, 6월 초여서 그런지 청밖이 제법 환하다. 여느 때 같으면 6시 30분에야 겨우 일어나는 딸아이가 오늘부터 당번이라며 먼저 일어나 부산을 떠난다. 딸아이는 올해 17살이다. 남들이 말하는 입시 지역의 문에 첫발을 들인 셈이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얼굴 마주하는 시간이 정말 드물어졌다. 주말에는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모처럼 아이가 빨리 오는 날은 꼭 저녁약속이 있어서 가족 모두 한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광주청소년을 악페스티벌’, 2009년에는 ‘열정! 노래로 날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오는 6월 14일 시청 야외음악당 하늘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09년 5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청소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학업 문제라고 한다. 또한 각종 국제비교조사에서

마늘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

람이 되지 못했고 곰은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용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마늘은 태초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소중한 식품임이 틀림없다.

최근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지구촌이 떠들썩하다. 지난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와 흡사하다. 중국과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를 훤히었던 사스가 유독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선 감염자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마늘이 등장한다. 김치에 들어있는 마늘이 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줬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마늘은 각종 감염과 바이러스에 뛰어난 저항력을 길러 주는 것으로 도 잘 알려져 있어, 세계가 인정하는 10대 향암식품으로 꼽힌다. 미국 국립항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 중에서도 마늘이 가장 뛰어나다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조대합니다

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다섯 손가락을

우리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낮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누구나 청춘에 꿈을 갖는다. 청춘은 결국 ‘꿈’이 있기에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꿈’이 내일의 행복을 위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지쳐있다.

청춘이 다시 오지 않는 ‘유한성’을 넘나드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소중한 환급기를 더 이상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채우게 할 수는 없다. 단 하루라도 한 자리에서 음악과 함께 미친 듯 웃어 보고, 맘설임 없는 흥으로 청춘을 노래하도록 해주고 싶다.

6월 14일 광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우리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노래를 통한 열정이 내일을 위한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 밝은 세상을 향해 끝없이 날아오를 것이다. 기대한다.

〈광주 청소년 육성담당〉

미성년자 음주, 부모에게 책임 물어야

빚길 감속 운행으로 사고 위험 줄이자

음에는 범칙금만 내지만 두 번째엔 최장 5일까지 부모가 구치소 신세를 져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는 당연히 형사적 처벌이 따른다.

우리나라 청소년도 음주와 흡연이 심각한 지경이다. 아르헨티나에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청소년 음주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 우리도 웬만한 수준에서 도입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속도가 빠를수록 급제동시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도로면에 물이 고여 있을 때 자동차가 고속 주행하면 수막현상으로 차는 방향성을 상실한다. 이럴 때는 제동시 펌프질하듯 몇 번을 나누어 밟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빚길에 감속 운행하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상대방의 차와 인명을 손상시키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인우·광주 북구 청풍동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皓 檻吉國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 | 저자·지사·국제구독신청·배달안내 |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2부 2200-692 | 사 회 2 부 2200-592 | 문화 2 부 2200-541 | 경영 2 부 2200-511 | 문화 흥 보 국 2200-541 |

〈F A X 222-4918〉 | 〈F A X 227-0118〉 | 〈F A X 222-8005〉 | 〈F A X 220-521 | 광고마케팅국 2200-651 |

면 접 부 2200-672 | 문화생활부 2200-661 | 광고마케팅국 2200-651 | 독자서비스국 2200-651 |

정 치 부 2200-634 | 여론매체부 2200-679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광고마케팅국 2200-651 |

경 제 부 2200-641 | 체 육 팀 2200-663 | 디